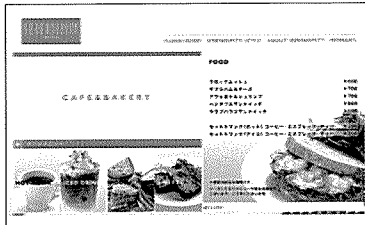


■ 일본

소니프라자에서 만든 새로운 스타일의 복합 쇼핑몰
성인 타겟으로 하는 '세렌디피티' 오픈



동경 니혼바시에 대형상업시설 '코레도 니혼바시'가 오픈하면서 생활잡화전문점 '소니프라자'에서 운영하는 '세렌디피티'가 주목받고 있다.

'세렌디피티'는 자기 스타

일을 중요시하는 성인 고객을 목표로 생겨난 신사업형태로 가정잡화, 인테리어, 식품 매장 및 카페 베이커리가 입주해 있다. 약 700평 매장의 면적에 동쪽과 서쪽으로 구역을 나눠 동쪽은 카페 베이커리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수입한 식재, 꽃, 주방, 욕실용품, 가구 등의 매장으로 구성한다. 카페 베이커리는 갇구운 빵, 샌드위치, 음료를 제공해 쇼핑하다가 출출해진 여성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서쪽은 헬스 & 뷰티 공간으로 고급 화장품, 뷰티샵, 네일 아트 샵 등이 있다.

●SERENDIPITY

東京都中央区日本橋 1-4-1コレド日本橋 3F
TEL 03-5205-0011

식품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ifia JAPAN 2004,
HFE JAPAN 2004 동시 개최



식품소재 및 첨가물 종합 전시회로 알려져 있는 'ifia JAPAN 2004(제9회 국제식품소재 / 첨가물전·회의)'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에 걸쳐

동경 빅사이트 회장에서 열렸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 전시회는 '파워 전개! 푸드 테크놀러지'를 컨셉으로 새로운 시대 식품 소재의 트렌드를 보여주어 관심을 모았다. 조미료, 감미료, 향신료 등 양과자 업체의 참가율이 높은 것이 특징.

'ifia JAPAN 2004'와 동시 개최된 'HFE JAPAN 2004(제2회 헬스푸드엑스포)'는 웰빙 열풍에 따라 건강식품과 기능성 식품을 한자리에 모은 일본 최대 규모의 전문 전시회로 많은 관람객이 몰려 웰빙 붐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했다.

■ 프랑스

벨기에 브뤼주에 초콜릿 박물관 오픈
초콜릿에 관한 모든 것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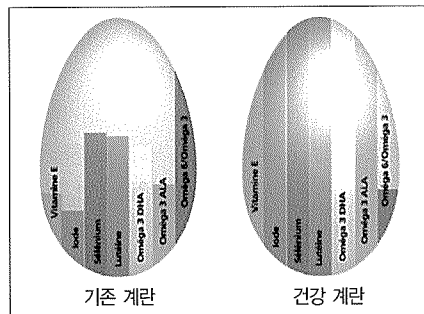


벨기에의 도시 브뤼주에 초콜릿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브뤼주 시내의 역사 깊은 건물인 '드 크론(de Crone)' 안에 세워진 초콜릿 박물관은 3개 층으로 나눠 초콜릿의 역사,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알 수 있게 구성됐다.

벨기에의 초콜릿 제조업체인 벨코라드사(Belcorade)사(社)의 후원을 받아 설립된 초콜릿 박물관에서는 관람객이 초콜릿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이 박물관은 벨기에 초콜릿을 홍보하고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브뤼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드 크론 안에는 초콜릿 박물관 이외에도 제빵사, 제과사, 소콜라티에를 양성하는 브뤼주 제과학교도 함께 있어 관람객들의 흥미를 더하고 있다.

글롱(Glon) 사(社) 양계용 사료 개발
프랑스 건강 계란 인기몰이 예감



프랑스에서 각종 영양분이 함유된 '건강 계란'이 곧 출시될 예정이다. 가축 사료 개발업체인 글롱(Glon) 사(社)는 닭에게 특수 모이를 먹여 영양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계란

을 낳게 하는 연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아채, 미네랄, 비타민 등이 섞인 사료를 먹은 닭이 낳은 계란 속에 그 영양분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이 계란을 상품 개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강 계란은 비타민, 오메가 3 등이 풍부하며 일반 계란에 비해 월등히 많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가격 또한 기존 계란보다 2유로 비싼 값에 판매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견된다.